"세금 먹는 '버스준공영제'… 억지행정 결과"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회의

양영식 의원 "예산 늘고 이용은 줄어… 개선 필요"

한해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률은 정체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에게 "버스준공영제가 2017년 도입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면서 "'돈먹는 하마'라는 질타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연간 도의 재정 부담률이 준공영제 시행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됐고, 이에 따른 교통 이동수단 분담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처음 버스준공영제 도입 취지에서 이용객 목표치가 1억명 이었다"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되기 이전 이용객 수치는 5600만명 정도였고, 현재는 5300만명 이다. 버스 대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2017년 275억원, 2018년 913억원, 2019년 910억원, 2020년 977억원, 2021년 1039억원, 올해는 추경에 100억원이 추가돼 총 10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어 도는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 112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6550억원이고 조금 있으면 1조원이 될 것인데 과연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2019년 당시 수단 분담률은 6400만명으로 운송률이 높았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등·하교가 없다보니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운행 효과를 보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기종 의원 "대응 서둘러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제주지역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의원은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게 "최근 수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며 "지난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후 대책회의를 가져본적 있냐"며 물었고, 좌 국장은 "대책회의는 못했고 향후 연안 5개 시도와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현기종 의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향후 대응에 대한 용역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단계별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 의원은 "해당 용역 수행기간이 당초 8월에서 11월까지 늦춰졌다"며 "11월에 용역결과에 따라 대처하면 방류시기와 대응 단계 계획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좌 국장은 "일본이 내년 봄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해 시기가 촉박하다"며 "독일 연구기관에서 7개월 이내에 오염수가 우리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는 있지만, 바다 해류 특성상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긴장감을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대정읍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 제한 지정

도, 개발제한지역 지정 고시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27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에따라 내달 2일 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대 19만1950㎡에 지정됐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이 실효되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천950㎡에 대해 앞으로 3년 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제한된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강다혜기자

"상장기업 20개 유치… 道 추진 의지 의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 "관련 예산 전무 …전략산업 설정이 우선돼야"

고태민 의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와 관련해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과제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2022년에 상장된 제주맥주를 포함하여 7곳이다"면서 "주식상장 수준의 기업이 제주에 육성 또는 유치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상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을 낮추거나 면제시켜 기업이 이전할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세 권한 이양이 안되고 있다"며 "지난 5월 전경련이 국내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사업장 신·증설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0%는 지방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특히 제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1.9%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과반수의 업체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선택했고, 해당 권역을 선택한 이유도 교통·물류 인프라로 응답한 비율이 60.5%에 달했다"며 "제주는 교통·물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서는 도의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상장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유관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국회의원, 원전오염수 공동 대응

송재호 도당위원장 등 27일 "중앙당 차원 대책 촉구"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송재호(제주시 갑) 국회의원과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내년 봄부터 해저터널을 이용해 각종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130만7811㎥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도당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를 비롯한 한국 연근해는 물론 인접국 해양생태계를 위협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출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안정성 검토와 국제사회 협조 요청 등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주변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방출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2 -27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4차)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장

Ⅰ 채용분야 및 조건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계약기간	근무조건
건강운동 관리사	2명	-운동 처방·상담 (온라인 상담 포함) -체력측정 -측정자 데이터 관리·분석 -체력증진교실 운영 -센터 및 행사 홍보 기획 -월별 실적보고 작성	임용일~ '22.12.31	-보수수준 ·기본급: 2,75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동식측정지원비(교통비) 등 -근무시간: 09:00~18:00,주5일(40시간근무) ※근무시간은 운영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영장 안전요원	1명	-수영장 안전관리 등	임용일~ '22.12.31	-보수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생활임금액을 준함 -근무시간: 09:00~18:00,주5일 (40시간근무) ※근무시간은 운영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자격기준
ㅇ 응시연령 : 공고일(2022.7.25.) 기준 만18세 이상(만 60세 이상 응시불가) ㅇ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ㅇ 지역제한 : 채용공고일(2022.7.25.) 기준 제주도내 주소를 둔 자 ㅇ「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자격기준	비고
건강운동 관리사	①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구. 1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운동처방 관련 과목 B학점 이상 이수자	①, ②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수영장 안전요원	①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고객센터→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에서 확인)	

Ⅲ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22.07.25(월)~08.03(수)	
	원서접수	'22.08.04.(목)~08.10(수) 17시까지	본회 방문 및 우편접수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22.08.12(금)	본회 1층 강의실 및 홈페이지
2차	면접전형	'22.08.16(화)	본회 1층 강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2.08.18(목)	본회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장애인체육회홈페이지(jesad.or.kr) 공지사항 참고
*전화문의 : 064-797-7811~3

CWA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제주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 2022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 훈련과정
타일기능사

+훈련장려금
※ 수료후 타일기능사 자격시험 응시비 지원

+ 훈련장려금
1일 16,000원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면제

+ 훈련기간
1일 6시간(20일), 9:00~16:00
1회차 8월29일~9월27일

+ 훈련기간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 중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분
-건설현장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분
-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분

훈련기관 문의
(주)제주직업전문학교 064)725-5546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 우 스

문의 : ☎ 064-723-1105